

화훼농가 '웃음꽃' 사라졌다

日 대지진 등 악재 잇따라 꽃소비 위축 고유가·불경기로 '5월 특수' 마저 실종

구제역과 일본 대지진 등 잇단 악재로 꽃 소비가 위축돼 울상이던 전국 화훼농가들이 '화훼업계의 대목'인 5월 가정의 달을 기대했으나 실제 기대만큼의 '특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월은 어린이날(5일)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가정의날(15일)·성년의날(16일) 등 각종 기념일 꽃 수요가 늘어 2~3월 입학·졸업시즌과 더불어 화훼업계의 대목으로 꼽힌다. 하지만 계속되는 불경기 여파와 유가 폭등으로 인한 유지비 상승,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 일본 수출 물량의 국내 리턴 현상은 화훼 물량 가격인상의 방어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1일 광주원에농협화훼공판장에 따르면 지난 29일 경매 낙찰가 기준으로 붉은색 카네이션 스탠다드는 1단(20송이)에 1만1000원에 낙찰됐다. 4

원 초 1단 7000원 가량에 비해 4000원 정도 오른 가격으로 '대목'이라 부르기엔 아쉬운 가격이다. 지난해 같은 달 1단(20송이) 낙찰 가격 1만3000원에 미치지 못한 것. 스프레이도 4월 초 1단(다발) 2000원에 비해 1000~2000원 오른 3000~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시기 5000~6000원에 비하면 오히려 떨어졌다.

붉은색 장미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4월 1단(10송이) 6000~7000원 이었던 가격이 올 4월 중순에는 2000원 가량 떨어진 5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5월 들어서도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장미는 로즈메이와 성년의 날 등 젊은층의 '확실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소폭 인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올봄 폭은 1000원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원에농협화훼공판장 관계자는 "대목이라 하더라도 카네이션 등의 중국 수입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데 일본이 대지진 여파로 화훼수입을 중단하면서 가격이 예년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화훼업계에 적극 지원을 나선 곳도 있다.

국내 장미 총 수출액의 73.4%를 차지하는 전북 지역은 지진 여파로 일본 수출이 급감하자 도 자체적으로 각 기업의 행사와 연계해 관측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5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2000여명이 참석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부스를 마련해 꽃을 특별 판매하고 OCI,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에 기념일용 꽃 판촉을 실시한다.

서구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김모(56)씨는 "계속되는 악재 속에서도 5월을 맞아 화훼업계 사정이 조금 나아지려나 기대했지만 크게 전망이 밝거나 좋지도 않다"면서 "전국적으로 도매 가격이 하락세인 것을 감안하면 기대만큼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울한 꽃집의 봄 '가정의 달' 5월 화훼업계의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꽃가게에서 점원이 손님을 기다리며 꽃을 부지런히 진열하고 있다. /최한배 기자 choi@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지는 모습이다. KOSPI 2200선 돌파 이후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자동차와 화학, 정유 등 주도 종목군에 대한 기관들의 차이 실현성 매물이 출회된다. 조금씩 개선되던 IT섹터의 투자심리가 다시 약화됐기 때문이다.

지수의 번복점에 단기적인 차이 실현 욕구가 강해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번 조정 흐름 역시 단

지원해 줄 것이다. 미국 기업의 실적 역시 글로벌 증시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P500에 포함된 기업들의 실적은 이미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이며 특히 금융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내외적으로 풍부한 유동성 역시 증시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이다. KOSPI는 5월 초까지 단기 이

두 달 연속 금등 피로감 '숨고르기' 자동차·화학·정유 저점매수 기회

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경기 모멘텀의 턱어라운드도 다소 지연되고 있는 형국이지만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다는 신뢰감이 여전히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뒷받침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5월의 KOSPI 역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두 달 연속 이어진 주가 급등의 피로감으로 월초에는 숨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국내의 경기와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양호하기 때문에 결국 KOSPI는 긍정적인 흐름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의 긍정적인 추세를 뒷받침해 줄 첫 번째 근거는 역시 실적이다.

자동차와 에너지화학 업종의 경우 이익증가도 연결되는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꾸준히 시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본격적인 업황 턱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반도체·보험·유통업종 등이 후반기 주자로 나서면서 시장의 탄탄한 흐름을

격 부담 해소와 차이 실현 매물 출회, 미국의 양적완화(QE2) 종료로 앞둔 투자심리 위축 등 부담 요인들이 맞물리며 숨고르기 양상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다는 신뢰감이 여전히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뒷받침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동차와 화학, 정유 등 주도 종목군에 이들 업종이 향후에도 국내 기업들의 모멘텀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조정을 활용한 저점 매수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다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박종도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신세계, 백화점·이마트 분할

"사업별 전문성 살리고 경쟁력 높이겠다"

신세계가 1일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을 나눠 2개 회사로 분할했다. 백화점 부문은 기존 신세계로 존속하고 이마트 부문은 신설 법인 ㈜이마트가 됐다.

㈜신세계 대표이사는 정웅진 부회장과 기존 백화점 부문 박건현 대표이사, ㈜이마트 대표이사는 정 부회장과 기존 이마트 부문 최병렬 대표이사가 각각 맡았다.

기업분할 비율은 자본금 기준으로 신세계 26.1%, 이마트 73.9%로, 신세계 자본금은 492억원, 이마트 자본금은 1천393억8천만원이며 신세계 변경시장 및 이마트 재상장은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기존 신세계가 투자한 계열사들은 사업 연관성에 따라 두 회사에 귀속

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호텔, 광주신세계, 신세계 의정부 역사는 신세계에, 조선호텔과 신세계푸드, 신세계 아이앤씨, 신세계건설, 스타벅

스코리아, 신세계L&B, 이마트 중국 현지법인(10개)은 이마트에 귀속했다.

기업분할 결정 이후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일가의 경영권 승계의 초석을 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됐으나 신세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사업별 전문성을 살리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라는 목적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사업별 투자 위험을 줄이는 대신 의사결정은 빨라지므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첨번호		2등보너스
17	20 30 31 37 40	숫자
등위	당첨금액(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900,077,375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7,578,103	33
3	5개 숫자 일치 1,322,253	1,437
4	4개 숫자 일치 50,000	75,335
5	3개 숫자 일치 5,000	1,174,597

광주은행, 제4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

광주은행은 지난 29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대학생 홍보대사(KJB Campus Friends)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발대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홍보대사들은 광주은행의 브랜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금융상품과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광주은행과 지역사의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보해, 음식업회원 자녀 68명에 장학금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는 최근 "2~4월에 거쳐 한국음식업중앙회전남도지회 회원자녀 68명에게 총 20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30여곳의 해당시, 군 지회 및 지부 정기총회에 맞춰 지급된 이번 장학금 전달은 이날 광주시지회 회원자녀 2명에게 장학금 전달을 끝으로 완료됐다.

진로, 참이슬 1병당 2원씩 1799만원 전달

(주)진로(대표·윤종웅)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1월~3월에 조성된 광주전남사랑기금 5차 조성금 1799만4540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진로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情 나눔 지역사랑 캠페인'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1병당 2원씩 출연해 조성 목표액 2억원 달성 시까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5차 조성액까지 총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과목]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08: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수업 개강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검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검찰직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발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특별반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명품 "강력단과" 영, 권, 행, 행, 권, 행, 행, 행, 행, 행, 행, 행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합격 소망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채점속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수업 개강
--	--	--	--	--	---	--	---

최다수강생
최다합격을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매월
1일